



# 업계소식

## BOILER ENGINEERING

###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한국언론인연합회 선정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명예회장이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언론인연합회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사회봉사부문에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등 1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명예회장은 지난 1984년에 사채 320억원을 들여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해 지난 20여년 동안 3만5000여명의 저소득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총 3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의탁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금으로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내놓는 등 공익 지원활동을 해 왔다.

이 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치러진다.

귀뚜라미 조순제 홍보팀장은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보다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아서 제공하는 귀뚜라미의 서비스 정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캠페인의 목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믿음을 서비스로 확대해 일등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린나이홈네트워크접속기술, 신기술인증 획득 과기부 선정, 토털관리서버 필요없는 접속기술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 www.rinnai.co.kr)는 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에서 자사의 홈 네트워크



크 접속기술이 홈 네트워크 분야 국내 최초로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인증해 상용화와 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번 신기술 인증에는 146개 기술에 대해 3차에 걸친 심사가 이뤄졌으며 총 36개의 기술이 신기술로 선정됐다.

인증된 신기술은 과학기술부로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 기술개발자금 및 시중은행 기술개발자금 우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린나이코리아의 '토틸관리 서버가 필요 없는 홈 네트워크 접속기술'은 아파트 등 신규 공동주택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시 주로 사용되는 "토틸관리 서버"가 없어도 집 밖이나 집안에서 자유자재로 홈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신기술.

이에 따라 린나이의 신기술을 사용하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처음 설치 할 때 필요한 고가의 초기 서버 설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고정된 서버 없이 인터넷 또는 전화 연결로 만으로도 공동주택을 포함한 신축주택이나 기축주택 등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홈 네트워크의 설치 및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지비용도 사용한 만큼의 요금만 지불하면 되어, 기존의 획일적인 과금방식의 문제점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린나이코리아 장기현 R&D 본부장은 "고객이 더욱 편리

하고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린나이코리아는 보일러 및 홈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린나이는 독자기술로 만든 차별화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해 토틸 리빙 시스템 제공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동나비엔 '30년社史' 발간

### 내년 창립일 맞춰 본책과 요약본 두권으로

경동나비엔은 사보 12월호를 통해 내년 4월 경동나비엔 창립 30주년에 맞춰 '경동나비엔 3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400여 쪽의 본책과 100여쪽의 요약본으로 발행하게 될 경동나비엔 30년사는 1978년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성장과 발전 과정이 모두 수록될 예정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발전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외형적으로 사내·외 다양한 독자들이 읽기 편한 판형을 채택하고 자료 소장용 본책과 함께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하며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사사(社史)의 특성상 소장 가치와 경제성을 감안해 본책은 고급 양장본으로 제작하고 요약본은 가볍고 실용적으로 제작해 언제든 쉽게 꺼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요약본은 지난 30년 역사를 통사와 사진, 그 밖의 다양한 콘텐츠로 버무려 재미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출판 후에는 사내 임직원은 물론 관계사, 도서관, 대리점 등에 널리 배포할 생각이다.

아울러 방대한 30년 역사를 고증하고 정리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경동나비엔은 대내적으로 기록·보존문화 정착과 임직원 사료 관리의 체계화를 꾀하고 대외적으로 경동나비엔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